

# ‘라켓소년단’ 탕준상→김강훈, “본격 스포츠드라마…매력 많아”

## SBS 월화극 ‘라켓소년단’ 제작발표회

### “배드민턴 본질·매력 보여주려 노력”

배드민턴계 아이들을 꿈꾸는 열여섯 소년·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라켓소년단’이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새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 제작발표회에는 배우 김상경과 오나라, 탕준상, 손상연, 최현욱, 김강훈, 이재인, 이지원, 조영광 PD가 참석했다.

‘라켓소년단’은 배드민턴계 아이들을 꿈꾸는 ‘라켓소년단’의 소년체전 도전기이자, 땅끝마을 농촌에서 펼쳐지는 열여섯 소년, 소녀들의 성장 드라마다.

김상경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최강 친화력과 능청맞은 녀석을 갖춘 배드민턴부 코치 ‘윤현중’으로 분한다. 한때는 날고뛰는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현실은 생활체육 강사다.

해체 위기의 해남서중학교 배드민턴부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상경은 “근래에 정말 보기 드문 대본”이라며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제가 보장하는데 재밌게 보다가 방심하던 차에 갑자기 울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입체적인 인물을 좋아하는 ‘윤현중’은 처음에는 굉장히 생활에 찌들어

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게 좋았다. 안 해본 역할이었고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주제를 풀어보려고 생각했다. 별 모습을 다 보시게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오나라는 극 중 배드민턴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배드민턴 전국 1등 해남제일여자중학교 코치인 ‘라영자’ 역을 맡았다. 카리스마 여장부로, 매서운 눈빛과 말 한마디로 다른 학교 학생들마저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다.

오나라는 “답답하고 따듯하고 인간미 넘치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다. 정보훈 작가님과 제가 예정하는 조영광 PD님이 하신다는 얘기에 대본을 보기 전에 선택했다. 대본을 봤는데 기대보다 더 따듯하고 좋은 작품이었다”며 “사실 저희가 이름이 앞에 와 있지만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나라라고 하면 그동안 완벽한 화장에 화려한 의상을 보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화장이 없고 패션에 신경을 안 쓰는 털털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탕준상도 타고난 운

동 센스를 지닌 ‘미친 승부욕’의 소유자 ‘윤해강’ 역을 맡았다.

김강훈이 맡은 ‘윤현중’의 아들로, 서울에서 야구부원으로 생활하던 중 땅끝마을로 원지 않은 전학을 오게 된 후 크고 작은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되는 인물이다.

탕준상은 “제 나이 또래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다. ‘무브 투 헤븐’의 ‘그루’와는 180도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해강”이는 타고난 운동센스와 미친 감각이 있어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배드민턴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연습했다.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작품으로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백꽃 필 무렵’ 등으로 큰 사랑을 받은 김강훈은 배드민턴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투마치 토커 ‘이웅태’ 역으로 분한다. 자타공인 분위기 메이커이자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의 열성 팬이다.

김강훈은 극 중 맛깔나는 사투리를 연기한다. 그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아빠가 전라도 분이어서 아빠한테 배웠다”며 “(주연을 맡은 데) 부담이 있었는데 형들과 누나,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믿고 잘 따라갔다. 진짜 열심히 찍고 열심히 썼다”고 밝혔다.

이상연은 강한 리더십의 해남서중 배드민턴부 주장 ‘방윤담’ 역으로 나서며, 최현욱은 해남서중의 자타공인 힘보이이자 패셔니스타 ‘나우찬’ 역을 맡았다.

이재인과 이지원은 각각 전국 1등 해남제일 여자 배드민턴부 부원 ‘한세윤’과 ‘이한솔’ 역



으로 출연한다. 배우들은 촬영 시작 전부터 수개월간 일대일 수업 등 배드민턴 연습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라켓소년단’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정보훈 작가와 ‘피고인’, ‘홍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등을 연출한 조영광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조 PD는 배드민턴을 소재로 처음 시도해 부담되기는 하지만, 스포츠 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그 자체의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드라마는 스포츠를 도구로 러브라인이나 권력관계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

았는데, 저희는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마”라며 “배드민턴의 본질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가짜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캐스팅 후 배우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만큼 좋은 스포츠의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스포츠 드라마라고 스포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승부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와 휴머니즘, 희로애락 등이 따뜻한 에피소드와 잘 어우러져서 힐링과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켓소년단’은 31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슈퍼밴드2’, 윤종신·윤상·유희열·이상순·씨엘

### JTBC, 6월21일 오후 9시 첫 방송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슈퍼밴드2’가 막강한 프로듀서 라인업을 공개하고 천재 뮤지션을 찾기 위한 출항에 나선다.

26일 JTBC에 따르면 ‘슈퍼밴드2’는 오는 6월21일 오후 9시 첫 방송을 확정하고 최강 프로듀서 라인업을 공개했다.

‘슈퍼밴드2’에는 윤종신과 윤상이 시즌1에 이어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또 유희열과 이상순, 씨엘이 프로듀서로 합류해 지원사격에 나서며, MC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전현무가 맡는다.

지난 시즌에 이어 프로듀서로 참여한 윤종신은 명실상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부로 손꼽힌다. 그는 ‘슈퍼스타K’, ‘팬텀싱어’ 등에서 냉정과 열정을 오가는 심사평으로 화제를 모으며 뛰어난 능력의 뮤지션을 발굴해 안목을 입증한 바 있다.

여기에 ‘위대한 탄생’, ‘팬텀싱어’, ‘슈퍼밴드’ 등에 프로듀서로 출연해 냉철한 심사평으로 ‘독설계의 다크호스’에 등극한 윤상이 시즌1에 이어 ‘슈퍼밴드2’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새롭게 합류하는 유희열도 만만치 않다. 유

희열 역시 ‘K팝스타’, ‘싱어게인’ 등에서 섬세하고 날카로운 심사평을 선보였다.

9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는 윤종신, 윤상, 유희열이 ‘슈퍼밴드2’에서 손을 잡는 만큼 어떤 심사평을 보일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특히 윤종신과 유희열은 이번 방송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만나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기타리스트 이상순도 ‘슈퍼밴드2’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상순은 롤러코스터는 물론 김동률과 함께 탄생시킨 베란다 프로젝트 등을 통해 프로듀서로서 능력을 뽐낸 바 있다. 또 ‘효리네 민박’에서는 자상한 면모로 새로운 ‘국민 남편’에 등극하기도 했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모습까지 지닌 이상순의 활약도 관련 포인트다.

‘슈퍼밴드2’의 방점을 찍을 마지막 프로듀서는 씨엘이다. 특히 씨엘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 중에 ‘슈퍼밴드2’ 프로듀서로 합류하기 위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선 프로듀서 라인업에 씨엘의 글로벌한 시선과 통찰력까지 더해지며 더욱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트와이스, 美 활동 박차…‘엘렌 쇼’ 첫 출연

### 다음달 9일(현지시간) 방송

그들 ‘트와이스’가 미국 NBC의 대표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처음 출연한다.

2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6월 9일(현지시간) 방송되는 ‘엘렌쇼’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난다.

18번째 현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토크쇼에 출격해 ‘K팝 대표 걸그룹’의 매력 을 전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트와이

스는 특히 올해 들어 북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타임100 토크’(TIME100 Talks), 4월 미국 NBC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 등 해외 매체에 잇따라 등장했다.

트와이스는 오는 6월11일 새 미니 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앞두고 있다.

앞서 같은 달 9일 오후 6시에 타이틀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먼저 선보인다. 같은 날 컴백 기념 쇼케이스도 연다.

## ‘모범택시’ 종영까지 2회…박진희·류현경 카메오 출격



배우 박진희와 류현경이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의 마지막 카메오로 나선다.

‘모범택시’ 측은 26일 최종화에 특별 출연하는 박진희와 류현경의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박진희는 극 중 북부지검에 부임해온 ‘도감사’ 역을 맡아 김의성(장성철 역)과 접명한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류현경은 ‘차지연’(백성미 역)의 동생 ‘백경미’로 분해 검사 이송(강하나 역)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한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박진희와 류현경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진희는 짧은 머리와 슈트 패션으로 매니시하고 지적인 매력을 드러낸 가운데 검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반면 류현경은 화려하고 세련된 비주얼과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검사실에서 조사

를 받는 와중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팔짱을 끼는 등 오만함을 드러내 극 중 언니이자 ‘빌런 끝판왕’ 차지연 못지않은 센개의 등판을 기대케 한다.

이처럼 두 사람이 ‘모범택시’ 최종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이 커진다. 여기에 각각 김의성, 이송과 연기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 기대감이 커진다.

‘모범택시’ 제작진은 “박진희, 류현경 두 배우 모두 박준우 PD의 전작 ‘닥터탐정’에 출연했던 인연으로 선뜻 카메오 출연을 결정했다”며 “자타공인 연기와 배우들이 만큼 짧은 등장에도 탄탄한 연기 내공과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고 밝혔다.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모범택시’는 오는 28일 오후 10시에 15회가 방송된다.

## 웅성우, ‘커피 한잔 할까요?’ 출연…“바리스타 변신”

### 총 12부 제작…25분 내외의 미드폼 드라마로 선보일 계획

가수 겸 배우 웅성우가 카카오투비 오리지널 ‘커피 한잔 할까요?’에 출연한다.

‘커피 한잔 할까요?’는 순수한 열정만으로 커피의 세계에 뛰어든 신입 바리스타 ‘강고비’가 커피 명인 ‘박석’의 수제자가 되면서 커피와 사람에 대해 배우가는 모습을 그린 감성 휴먼 드라마다.

허영만 화백이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그린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원두 선별, 로스팅, 추출까지 커피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커피’에 담긴 아날로그 감성까지 원작의 따뜻한 힐링 감성을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웅성우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 ‘강고비’ 역을 맡는다. 강고비는 커피의 매력에 빠져 무작정 커피 장인 박석이 운영하는 카페 ‘2대 커피’를 찾아가 배움을 청하는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캐릭터다.

그는 박석의 정식 제자가 돼 본격적으로 커피의 세계에 입문한다. 박석의 가르침 아래 실

수를 거듭하면서도 커피를 통해 다양한 인성을 만나고 부딪히고 위로를 건네며 최고의 바리스타로 차근차근 성장해 갈 예정이다.

그간 웅성우는 JTBC ‘열여덟의 순간’, ‘경우의 수’ 등을 통해 노래와 춤 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다. 이번에는 사람 냄새 나는 감성 휴먼 드라마로 또 한번 연기 변신에 나선다.

커피를 매개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법을 깨우치면서 성장해가는 ‘강고비’ 캐릭터를 통해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웅성우는 “팬소 너무 좋아하는 허영만 화백님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벌써부터 무척 설렌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또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커피를 소재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감성과 힐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커피 한잔 할까요?’는 25분 내외의 미드폼 드라마로 선보일 계획이다. 총 12부로 제작된다. 상반기중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연내 카카오투비를 통해 공개한다.

## 하성운, 다음달 7일 ‘스니커즈’ 공개

### 7개월 만에 컴백

프로젝트 그룹 ‘위너윈’ 출신 가수 하성운이 7개월 만에 컴백한다.

25일 소속사 스타크루이엔티에 따르면, 하성운은 오는 6월7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스니커즈(Sneakers)’로 돌아온다. 지난해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미라지(Mirage)’ 이후 처음이다.

하성운은 오는 26일 첫 번째 티저를 시작으로 앨범 발매일까지 12개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하성운은 2014년 그룹 ‘핫샷’으로 데뷔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2017년 반전의 기회

가 찾아왔다.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의 보이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 멤버로 뽑혀 재데뷔하면서 재발견됐다.

1년6개월 동안 이 팀의 멤버로 활약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2019년 1월 워너원이 해체한 뒤 그해 2월 첫 번째 미니앨범 ‘마이 모멘트’를 내놓고 솔로 데뷔를 했다.